

배우 한다감, 임성한 틀 깨고 “내스타일 살렸죠”

TV조선 중방극 ‘아씨두리안’ 재벌가 며느리 ‘이은성’ 완벽 소화
데뷔 후 처음 단발머리로 변신하는 등 외적인 부분도 신경써

배우 한다감(43)은 임성한 작가 작품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임 작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TV조선 중방극 ‘아씨두리안’ 제안을 받았다. 극본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사 양도 많아 여러 번 봐야 이해할 수 있었다. 정신·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재벌가 며느리 ‘이은성’(한다감)을 완벽 소화하고 싶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단발머리로 변신하는 등 외적인 부분도 신경 썼다.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임 작가님 작품에 너무 열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임 작가님은 대사 도씨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걸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돼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당연하다는 듯 익숙해지더라. 대사 양도 단연코 최고 난이도였다. 임 작가님 작품에 국한되기 보다, 나를 자유롭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작품에서 이 캐릭터를 연기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다. 대사, 톤 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한다감 스타일을 가미했다.”

이 드라마는 두 여인 ‘두리안’(박주미)·‘김소저’(이다연)와 단지 일가의 시대를 초월한 운명 이야기다. 은성은 재벌가 총수 ‘백도이’(최명길) 둘째 며느리이자 ‘단지감’(김민준) 부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해 부담감이 컸을 터다. “처음부터 작가가님 ‘김건희 여사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사진을 받고 자료를 찾아보며 헤어를 연구했다. 아무래도 작가는 재벌가의 교양있는 분을 떠올리며 픽한 것 같다. 다른 인물은 참고하지 않고, 그분만 생각하고 연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괜찮았다”고 털어놨다. “앞머리에 웨이브가 들어갔는데, 평소 해보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우왕좌왕 했다”며 “작가가님 ‘1cm만 더 앞으로, 1cm만 더 뒤로’ 등 디테일하

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은성 반러전 ‘오이지’는 마스크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촬영 전부터 오이지가 우리 집에 와있었다. 임 작가님 권유였다”며 “처음에 오이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송이나 말티즈를 생각했는데 치와와였다. 굉장히 말을 잘 들었고, 오랫동안 함께 산 아이처럼 행동해 빨리 교감할 수 있었다. 사실 강아지와 촬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이지는 짓지도 않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칭찬해주고 싶다”고 했다.

아씨두리안은 40~60대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파격적인 설정으로 호불호가 갈렸지만, 1회 4.2%(닐스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해 16회 8.1%로 막을 내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도 서비스해 중국, 태국 등에서 인소문을 탔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중국인”이라며 “요즘 댓글이 다 중국 말”이라고 웃었다. “임 작가님 극본은 이야기 보따리꾼”이라며 “어떤 이야기도 마음만 먹으면 100가지, 1000가지로 늘리고, 시청자들이 빠져 보게 만든다. 작가가님 또 불러주면 감사하다. 내가 표현한 은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에 들어하는지 궁금하다.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다”고 바랐다.

특히 시어머니 ‘백도이’(최명길)와 첫째 며느리 ‘장세미’(윤혜영)의 고부간 동성애로 호기심을 끌었다. 도이와 서른살 연하 ‘주남’(곽민호) 로맨스도 재미를 더했다. 은성이 두리안에게 대리모를 제안했을 때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임 작가님 극본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은성이 두리안한테 그렇게 말 할 줄은 몰랐다.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빨리 흡수하는 편이지만, 그 대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며 놀랐다. 어느 정도 공감에 돼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살다 살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싶었다”고 부연했다.

‘아씨두리안’에서 정상적인 캐릭터는 은성이 밖에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김민준과 부부 호흡 관련해서는 “첫 촬영부터 잘 맞았다. 네 살 차 오빠인데, 생각보다 선하고 배려심이 많다”며 “마지막에 ‘치감이가 은성이한테 사과할게’라고 문자가 와 감동했다. 치감이 무뎠다고 시크한 캐릭터라서 내가 속상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슬립만 입고 치감을 유혹하는 신은 “부담됐지만,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런 의상을 입은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웃을 뻔했는데, 스태프들은 일 하느라 관심이 없더라. 씩씩하게 했다”고 돌아봤다.

마지막회에서 치감은 전생의 ‘돌쇠’(김민준)로 분해 두리안과 사라졌다. 은성의 결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워낙 남편을 좋아해서 기다렸을 것”이라며 “키우는 강아지 수를 늘리지 않았을까. 한 열 마리는 키우면서 ‘개엄마’로 살지 않을까 싶다”고 웃었다. 시즌2도 암시했는데 “불러주면 감사하다”며 “은성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즌2를 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한다감은 결혼 후 일 욕심이 많아졌다. 2020년 한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 후 쉬지 않고 활동했다. “일에 치중해서 살다 보니 결혼했는지도 인지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다. “남편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재미있었다’고 하더라.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다. ‘드라마 좋아했어. 고생했어’라고 했다”며 “며느리로서는 집안 행사를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 일을 한다고 내색하거나 핑계 삼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한은정에서 한다감으로 개명할 지도 5년



이 넘었다. “지금은 어색함이 전혀 없다”며 “그때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했고, 이름이 조금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이름을 갖고 싶었다. 호적도 바꾼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짜 약하게 태어났다. 어렸을 때 항상 옆에 있어서 별명이 ‘또 아파?’였다. 한 신 찍고 쓰러지곤 했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며칠 밤새도 끄덕 없다. 20~30대 때보다 건강하다”며 “운동만이 살 길이다. 헬스장 가서 PT 받고, 등산하고, 한강변도 걷는다. 실내운동과 등산은 다르다. 힘들지만 촬영할 때도 틈나는 대로 산에 갔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여러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도시적이고 시크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어울린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어느 순간 세련되고 도시적인 캐릭터 하면 한다감이 떠오르게끔, ‘하나라도 제대로 내 영역을 구축하자’고 마음 먹었다. 요즘은 캐릭터 시대 아니냐. 다양한 캐릭터를 섭렵하려고 하기 보다,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 같은 캐릭터를 맡아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자신이 있다.”



이제훈·김태희·비비 뜬다 제5회 뉴시스 한류엑스포

K-콘텐츠 알린 스타 한자리

‘제5회 뉴시스 한류엑스포’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뉴시스 한류엑스포는 2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펠리스 더그레이트홀에서 열린다.

배우 이제훈은 SBS TV ‘모범택시2’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원조 한류스타 김태희는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으로 서울시장상 영예를 안는다. 각각 박성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상한다.

배우 이도현과 가수 겸 배우 비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을 받는다.

이도현은 넷플릭스 ‘더글로리’와 JTBC ‘나쁜엄마’, 비비는 정규 1집 ‘로우 라이프 프린세스-누아르’(Lowlife Princess-Noir)(2022)와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화란’(감독 김창훈)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도현은 최근 군인대해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며, 비비는 직접 시상식에 참석한다.

넷플릭스 ‘피지컬: 100’ 장호기 PD는 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 피지컬: 100은 올해 1월 공개 후 국내 예능물 최초로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K-콘텐츠 힘을 보여줬다. 장 PD는 4월 MBC 퇴사 후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이적, 레이블 스튜디오27 CCO(Chief Creative Officer)를 맡고 있다. 피지컬: 100 시즌2 촬영 중이며, 시즌3·4는 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버전을 기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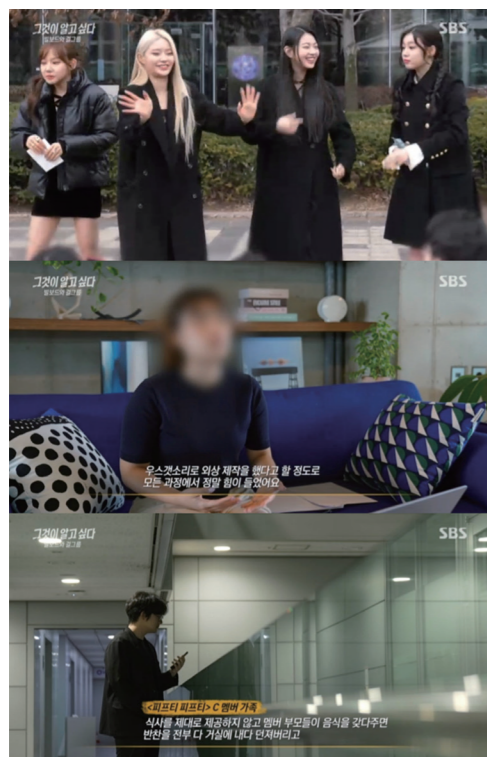
배우 주현영은 쿠팡플레이 코디미쇼 ‘SNL 코리아’ 시리즈로 서울시의회의장상을 수상한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ENA ‘이성현 변호사 우영우’(2022)로 정국 연기도 합격점을 받았으며, 하반기 MBC TV ‘열녀박씨 계약결혼녀’로 인시할 예정이다.

한일 프로젝트 그룹 ‘아이스원’ 리더 출신 가수 권은비와 그룹 ‘빅톤’ 출신 최병찬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상을 받는다. 최근 권은비는 ‘워터밤 여신’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곡 ‘언더워터’(Underwater)가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 했다. 최병찬은 드라마 ‘연모’(2021)와 ‘사내맞선’(2022)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극중 ‘휘’(박은빈) 호위무사 ‘김가운’, ‘신하리’(김세정) 동생 ‘신하민’으로 분해 주목 받았다.

JTBC 보이그룹 오디션 ‘피크타임’ 우승팀인 그룹 ‘베니’와 JTBC 크로스오버 중창단 서바이벌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테’, 전원 외국인 걸그룹 ‘블랙스완’도 자리를 빛낸다. 차세대 한류스타상을 수상하며, 공연도 선보인다. 특히 베니는 21일 발매하는 첫 번째 미니앨범 ‘베니 비디 비시’(VENI VIDI VICI) 타이틀곡 ‘퍼포머’(PERFORMER)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해 기대를 모은다.

뉴시스 한류엑스포는 2019년 지속가능한 한류와 문화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범했다. 디지털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 온·오프라인 행사를 구현, 한류 중심도시인 서울 인지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제5회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했다. 올해 주제는 ‘매력 도시 서울 웨이브다.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 재탄생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피프티 편 후폭풍...“편파 방송” 시청자 게시판 마비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편 파 방송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방송 직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은 피프티피프티와 이번 방송에 대

피프티 멤버 가족 일방적 주장 담아 비판

한 비난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마비 됐다. SBS TV 예능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일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 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다뤘다.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측 주장을 함께 다뤘다. 그러나 소속사 어트랙트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향한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과 멤버 가족의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면서 시청자 비난에 휩싸였다. “중립적인 척하고 있지만 결국 피프티피프티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프티피프티의 팬의 주장에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피프티피프티 멤버가 제작자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전했지만 김상중이 직접 읽은 대목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방송에는 멤버 가족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이들은 어트랙트와 전 대표가 멤버들을 감시한 것은 물론이고 멤버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멤버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멤버 A의 가족은 “어트랙트 대표는 아이들한테 공포의 대상”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다 느꼈다”고 했다.

B의 가족은 “대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여론을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을 옥죄고 돌아오라고 한다. 그게 더 무섭다”고 말했다.

C의 가족은 “정산 문제는 부수적”이라며 “언젠가 한 멤버가 힘들어 해서 소속사에서 뛰쳐나온 적도 있다.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해서 산소호흡기를 통해 깨어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속사에 폐쇄회로(CC)TV도 있었다. 숙소에 감시와 통제도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렸다.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들을 심하게 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돈이 고 뭐고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제작진은 피프티피프티 팬이라는 남성을 만나 대화한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팬은 “(전홍준 대표가) 국민 대표, 국민 아빠처럼 불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상중은 멤버가 보낸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다. 이 편지엔 “저희는 음악을 사랑한다. 오래 음악하고 싶다. 지치고 힘든 게 사실이다.

보답하기 위해 곳곳이 버터내려 다짐하고 있다.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관계자들은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고국진 KBS 예능 PD는 소설미디어를 통해 “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감정에 호소하는 마지막에서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산을 받고 혹은 부채를 갚는 게 음원 수익으로 밖에 안 된다고? 행사는? 광고는? 수익이 나는 모든 활동에서 변제 혹은 정산이 발생하는 건데 어찌 얘기만 듣다 나온 거 같지? 인터뷰만하고 후속 취재가 없네. 엔터 일을 잘 아는 자사 예능PD에게만 물어봐도”라고도 했다. 고 PD는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이야기쇼 두드림’ ‘출발 드림팀’ 등을 연출했다.

전 대표가 2013년에 내놓은 보컬 그룹 더 러쉬의 김민희도 방송을 비판하며 전 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전홍준) 사장님 (지지는) 여론이 왜 언론(언론플레이)이냐”며 “우리 행사 많을 때도 내 친구 결혼한다고 그날은 아무것도 잠지 말아달라고 하면 다 빼했다. 가족 여행 스케줄도 다 맞춰줘서 여행하다가 ‘인기가요’ 스케줄에 혼자 먼저 귀국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덕분...빌보드 ‘핫100’ 톱10 빛낸 한국어

역대 톱10 비영어 곡 중 한국어곡(8곡) 두 번째로 많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65년 역사상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최상위권에 오른 비영어 곡 가운데 한국어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에 큰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Every Non-English-Language Song to Reach the Top 10 of the Billboard Hot 100)에서 이 같은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스트리밍, 음원·음반 판매량 환산 수치뿐 아니라 미국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핫 100’ 특성상 비영어 곡에는 차트 진입장벽이 높다. 빌보드에 따르면, ‘핫 100’ 순위가 도입된 1958년 이래 이 차트 톱10에 진입한 비영어 곡은 총 35개에 불과하다. 스페인어로 된 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8곡), 독일어(3

곡),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각각 2곡), 일본어(1곡)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곡의 약진에는 K-팝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공이 크다.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페이크 러브’(FAKE LOVE),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Feat. Halsey), ‘온’(ON),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지민 솔로곡 ‘라이크 크래지’(Like Crazy)’ 등 6곡을 ‘핫



100’ 10위권에 포진시켰다. 나머지 두 곡은 한류스타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최고 순위 2위)과 ‘젬뮌’(최고 순위 5위)이다.